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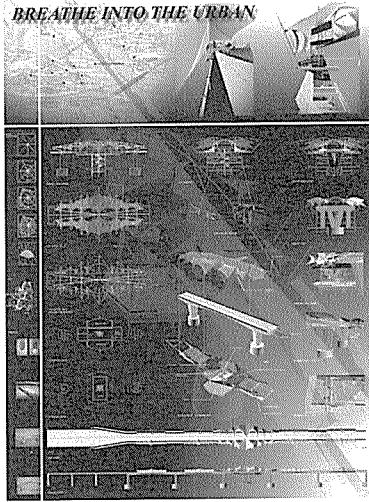
제1회 막구조디자인공모전

「이상건축」 주관  
데이비드 웨이크필드 심사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후원하고 이상건축(대표: 강철희)에서 주관한 제1회 막구조디자인공모전(1st Membrane Design Competition)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2월 5일에 서울역 문화관 제1전시실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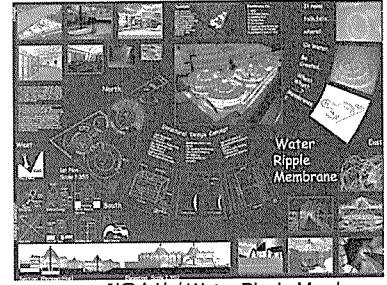
막구조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신한 아이디어, 디자인 개발 및 활용으로 한국 막구조 건축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영국 텐시스사의 대표이자 막설계 전문가인 데이비드 웨이크필드(David Wakefield) 박사가 맡았고 최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특선 5점, 입선 다수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이어 데이비드 웨이크필드 박사의 특별 강연회(주제: Membrane Structures)가 함께 있었다. (문의: 02-831-8631 이상건축)



최우수상 / Breathe Into the Urban  
박광수, 강준형, 이택준, 구성성, 이재호  
(이상 홍익대 건축학과)

강은 도시의 얼굴이고 힘이다. 파리의 세느강은 낭만적인 관광지이자 도시행정의 중심이다. 지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강의 이러한 개발은 합리적이다. 서울은 한강을 가지고 있다. 지상교통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둘씩 놓이기 전까지는 한강은 그저 관념적 차원이 아닌 사람들의 삶 자체였다. 하지만 서울이 강남·북을 비롯해 주변의 위성도시까지 거느린 메트로폴리스가 되어 버린 지금, 한강은 과연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옛날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던 강의 추억들 - 할아버지와 손주의 물장난, 아낙들의 물질과 웃음소리, 사공의 노젓는 모습 - 이 하나 둘씩 지워져 이제는 스치는 무의식 속에만 만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관계로서 자연과 사람, 자연과 도시, 인간과 도시를 엮어주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강남과 강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도시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본 계획은 다리를 단절이 아닌 만남의 매개공간으로 승화시켜 현재의 수평이동 수단만 쓰이고 있는 한강의 다리를 풍요로운 문화의 공간, 즉 거리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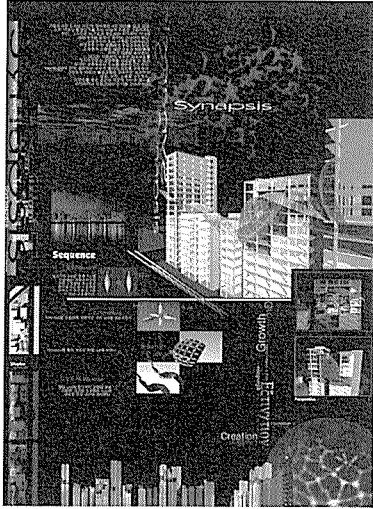
최우수상 / Water Ripple Membrane  
양진석, 이정민, 이재원, 안영욱, 박동춘  
(이상 충남대 건축공학과)

테마파크를 위한 전시공간, 공연공간, 휴식공간을 연계적으로 창출함에 있어서 막의 구조적 역할과 그 형태 디자인의 효과적인 조화를 꾀하였다. 막의 특성상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람과 비, 눈 등의 자연현상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하이테크적인 구조, 시공기술과의 조화와 연결을 도모하였다. 대지의 특성상 시에 진입하는 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이미지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내부와 외부와의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막에 자연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외부에 물과 나무를 자연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테마파크의 주제에 맞게 동선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연속성을 주었다. 또한 전체적 건물내·외부를 연결시켜 형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꾀하였다. 그 형태는 자연적 요소에서 유추하였다.

막구조에 있어서 전체적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막이다. 그 쓰임(적용)이 지붕이든 벽이든지간에, 그 형태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막의 특성상 자연요소와의 밀접한 관계를 떠올렸다.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와 동화를 위해서 그 형태를 자연에서 유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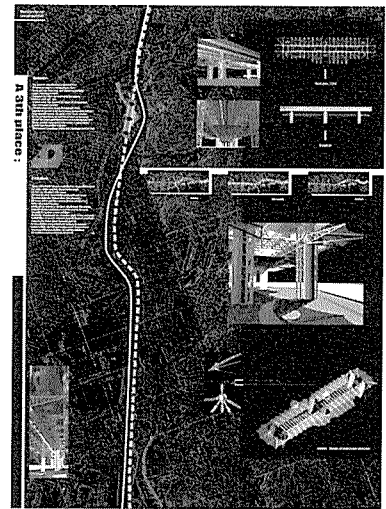
떨어지는 빗방울에 의해 생기는 강이나 바다의 잔잔하면서 격렬하기까지 한 파문(Water Ripple)에서 그 형태를 유추하였다.



장려상 / Synapsis  
최현(신아건축사사무소), 안창현(한양대 건축공학과),  
유은희(A-stone건축), 제태영((주)동현건축),  
정혜옥(산업대 건축공학과)



장려상 / Church Connecting People to Heaven  
강희정, 김현정, 전주현, 고명선  
(이상 고려대 건축공학과)



장려상 / A 3rd Place  
송기진, 엄민호, 김각성, 이해연, 김지훈  
(이상 국민대 건축학과 대학원)

도시에서 이식된 인자(Factor)는 새로이 제안된 기본단위(Unit)의 결합을 통해 건축적인 공간을 형성해 간다. 이 기본단위(Unit)들은 미시적으로는 개개가 의미와 기능들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결합, 확장을 통해 개별적인 공간의 완결성을 갖춘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이 새로이 제안된 구조단위들은 Membrane의 경량적, 가변적인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유로운 내부 공간구성의 기능을 담고 있어서, 우리들의 도시적인 이식 작업에 있어서 한층 더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즉 정형화된 도시 빌딩군속에서 자유로 이식될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Membrane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개념의 흐름은 도시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거시적인 접근방식과 구조단위의 접근에서 보여지는 미시적 접근의 상호보완 관계에서 작업되어졌다. 현재의 도시에 리노베이션적인 재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반 투광성의 막을 이용하여 빛을 걸러 수용하는 신성한 예배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늘과의 교감을 촉진한다. 또한 막구조의 구조형태의 자유로움을 이용하여 시점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면을 보여준다. 교회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계단을 따라 올라오며 입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배당의 지붕, 즉 반 투과막의 위치에 따른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예배당이 다 보일 때쯤 넓게 오픈된 공간인 광장이 나타나며 예배당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긴장이 완화되며 동시에 예배당에 비해 하찮은 인간의 존재를 느끼며, 겸허함을 갖고 신의 공간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조금은 좁은 긴 복도를 지나 예배당에 들어서면 시각에 장애가 전혀 없는 탁트인 대 예배공간이 펼쳐진다. 예배당은 반 투과막으로 덮여 있다. 지금까지 진입경로를 통해 감정의 정화를 겪은 사람들은 막을 통과한 빛을 느끼며, 때로 비가 올 때에는 대자연의 위력을 느끼며 더욱 더 하늘과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된다.

#### 최우수상(공동수상)

1. Breathe Into the Urban  
박광수, 강준형, 이택준, 구성성, 이재호  
(이상 홍익대 건축학과)
2. Water Ripple Membrane  
양진석, 이정민, 이제원, 인영욱, 박동춘  
(이상 충남대 건축공학과)

#### 장려상

3. Synapsis  
최현(신아건축사사무소), 안창현(한양대 건축공학과), 유은희(A-stone건축), 제태영((주)동현건축), 정혜옥(산업대 건축공학과)
4. Church Connecting People to Heaven  
강희정, 김현정, 전주현, 고명선(이상 고려대 건축공학과)
5. A 3rd Place  
송기진, 엄민호, 김각성, 이해연, 김지훈  
(이상 국민대 건축학과 대학원)

#### 특선

6. Membrane Tree  
박병훈, 이은경(이상 (주)경진건축사사무소)
7. 열림  
안영웅, 박노원, 임형준(이상 홍익대 건축공학과)
8. Tide Scape  
최재영(전남대 건축학과 대학원), 심재현, 김준택, 김홍일(전남대 건축학과)
9. Rib Analysis  
이은창, 서제원, 정세영(이상 홍익대 건축공학과)
10. 표면무한부피소실  
김형균